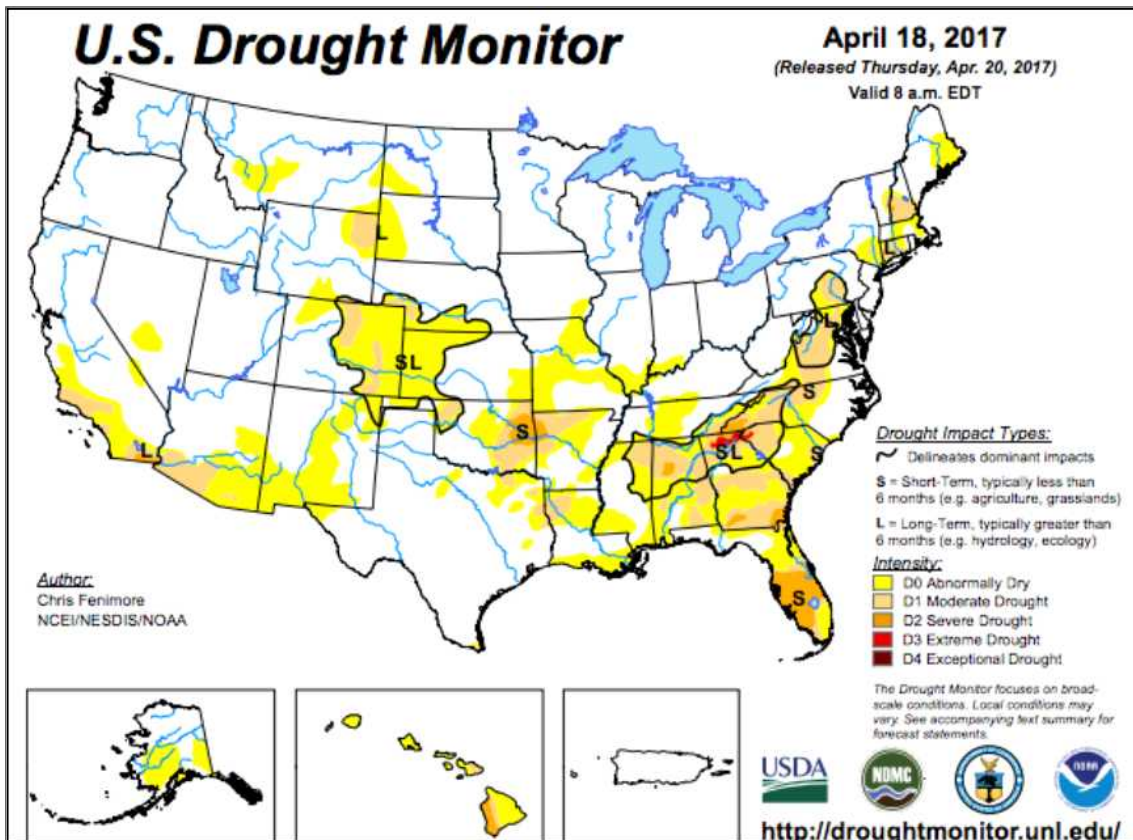


4월 2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17)

□ 미국 기후 현황(4/16~4/22)

대기가 불안정한 날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몇 차례 비가 내렸다. 캘리포니아 북부와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농작업이 자주 중단되고 작물 생육속도도 느린 편이다. 로키산맥 북부와 중부, 중서부, 북부 평원 등에서도 비가 내렸다. 중서부 남쪽 일대에서는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옥수수 파종작업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보다 남부지역에서는 주 후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내려갔다. 남동부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오랜 기간 동안 기승을 부렸던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플로리다 남부에서는 4월 23일 비가 내렸다. 이 일대에서는 보다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남동부 저지대에서도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미시시피, 알라바마, 조지아 북부 및 오하이오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4/17~4/23)

평균 강우량은 평년에 비해 높았다. 애팔래치아 산맥 서부에서부터 중부 일대에서는 제법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알칸사스, 미주리, 오클라호마, 테네시 등에서는 5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높은 기온을 보인 가운데, 남동부와 오하이오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8°F 이상 높았다.

□ 세계 기후 현황(4/16~4/22)

■ 유럽: 서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고 동부에서는 비가 내렸다. 잉글랜드 남동부, 프랑스,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잉글랜드 남동부와 프랑스에서는 일시적으로 가뭄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 서부에서도 지난 30일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10~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겨울밀 등의 생육상황은 현재까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60일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10~5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기온도 평년에 비해서 7°C 정도 높은 편이다. 독일 중부에서 남부 일부 지역 및 폴란드, 발칸반도 일대, 이탈리아 북부 등에서는 느리게 움직이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0~7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비로 인해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 등의 파종작업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토양 수분 함량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고, 러시아에서는 생산량 전망을 한층 밝게 해 주었다. 몰도바,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10~8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러시아 남부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몰도바, 우크라이나 남부 및 러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로 인해 여름작물의 파종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서부와 북부에서는 옥수수, 대두 등의 파종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비가 내린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6°C 정도 낮았고, 지역에 따라서는 기온이 영하 2~10°C 내외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 동아시아: 중국 남부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다. 양쯔강 남부 일대에서는 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곳에 따라서는 50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Guangdong, Guizhou 등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양쯔강 북부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중국 북부 평원의 동부 일대에서도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렸다. 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C 정도 높았고, 작물들의 생육속도는 빠른 편이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등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였다. 앞서 내렸던 비로 인해 토양 수분량은 겨울작물 파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호주 남동부에서도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서호주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캐놀라 파종작업에 도움이 되었다.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겨울작물 파종시기와 유지 작물 파종시기가 각각 오월, 유월이지만, 지난 4월 많은 비가 내린 이후 파종작업이 일찍 시작되었다. 남동부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2~4°C 정도 높았고, 서호주와 북동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다.



■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La Pampa, Cordoba, Santa Fe 등에서는 지난 몇주간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난 한주 동안은 맑은 날씨를 보였다. La Pampa, Buenos Aires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C 정도 낮았다. 북부지역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특히 Entre Rio 중부에서도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도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은 편이었지만 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까지 올랐고 밤사이에도 기온이 10°C 이상을 유지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4월 20일 기준 옥수수,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25%, 21%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빠른 편이다. 해바라기의 수확률은 98%를 기록했다.

■ 브라질: 중부와 서부의 Mato Grosso, Goias, Mato Grosso do Sul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반면 서부의 Bahia 등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고, 낮 최고기온은 30°C 후반까지 올랐다. Minas Gerais, Rio Grande do Sul 등에서도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4월 17일 기준 이모작 옥수수의 개화율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준 대두와 옥수수의 수확률은 각각 97%, 94%인 것으로 나타났고, 밀의 수확률은 2%를 기록했다.